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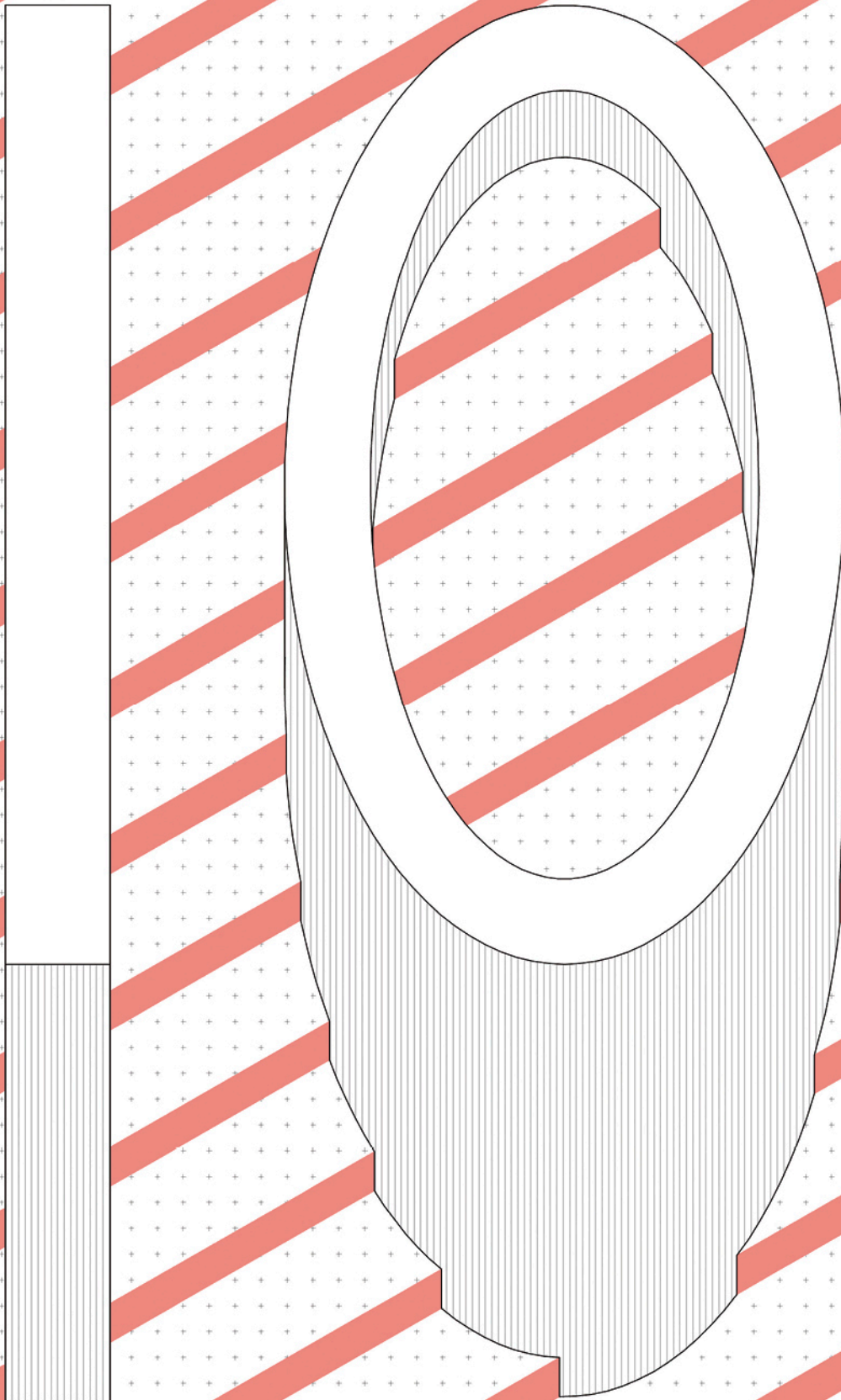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9.11.120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현규,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02-03 창간 10주년 기획

건축문화사랑 신문 10년을 돌아보며...(역대 편집인들의 기억)
창간 10주년 기념 특별기고문
건축문화사랑 신문은...

04-05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2019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광주건축사회, 관내 건축 관련 공무원 대상, 우수 공무원 선발한다
광주건축사회, 광주시·전남도에 세움터 '협업결과보기' 기능 사용 활성화 계도 요청

06-07 전남 지역 뉴스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 지역 인재 육성 위해 3백만 원 기탁
전남건축사회, 고등학생 대상 '전문직업인 강연회' 진행
전남 여수지역건축사회, 주거 취약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진행

08-09 전북 지역 뉴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성료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행업협회, 전북건축사회와 교류차 방한
전북건축사회, 도내 건축사 회원 및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10-11 제2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 부문 금상 '아크레타 양림'
주거 부문 은상 '녹원재'
주거 부문 동상 '수원동 주택'

12-13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일반 부문(사용승인 공공 분야) 대상 '장수군청사 건립사업'
일반 부문(주거·비주거·한옥 분야) 대상 '파머스빌리지-농부들의 숙소'

14 종합

사랑에서 _ 건축과 사회학
건축사 만평
나무심는 건축인, 2019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선정

15-16 광고

광고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열람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건축문화「사랑」신문 10년을 돌아보며...(역대 편집인들의 기억)



박 홍 군 초대 편집인

2009년 11월 ~ 2012년 3월 역임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광주와 전남·전북건축사회가 발행하는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창간 된 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시작할 때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지역 내 소통, 공유, 관계의 필요성과 지면으로 활자화된 것의 가치를 공감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길다고 생각하면 긴 세월인데... 초기의 목적에 가까워졌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가치는 얻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도 있어 보인다.

신문은 소통의 장이다. 공유의 공간이다.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건축주와 건축사, 행정가와 건축사, 시민과 건축사, 교수와 건축사, 건축사와 건축사 등등. 이들 간의 소통과 공유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의 장이 되길 다시금 바란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살맛 나는 도시, 행복한 건축이 많이 만들어지는 데 '건축문화사랑'이 그 중심에서 많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10년간 고생하신 편집인과 편집위원, 기자로 봉사해주신 건축사와 학생들께 감사할 뿐이다.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기 쉽지만, 함께하는 꿈은 현실이 될 확률이 높기에 다시금 초심의 마음으로 신문을 만들고, 참여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면 좋겠다.



정 명 환 3대 편집인

2016년 4월 ~ 2018년 4월 역임
(주)디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일 년, 이 년, 삼 년... 십 년을 만들어온 신문, 많은 사람들은 십 년의 나이를 먹은 건축문화사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축하하려고 할 것인데 그 뒤에 백이십 번의 산고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

신문의 매호 표정은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기분, 감정, 만남이 다르듯, 일 년 이십사절기 자연 섭리가 다르듯, 매 호는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며 앞으로 나아가는 심정으로 반성과 각오 속에서 시간과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눈 덮인 들판을 갈 때 첫발을 내디디며 발자국을 남기는 이가 있고 그 발자국을 따라 걷는 이도 있다. 밤새 내리는 눈은 앞 흔적을 덮어버리고 또 다른 자국을 만들도록 하얀 들판을 우리에게 선사하듯 아침을 연다.

비어있는 열두 페이지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고 그 속에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 붙여가며 만들어온 신문은 인쇄소 따뜻한 잉크 냄새를 맡으며 이제 일천칠



서 재 형 2대 편집인

2012년 4월 ~ 2016년 3월 역임
건축사사무소 선 대표 건축사

개인적으로는 건축과 인연을 맺은 지도 반백 년이 넘었다. 건축과의 인연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후로도 건축은 항상 내 곁에 있었고 내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그런 사실을 조금씩이나마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 알면 알수록 안타까움이 일기 시작했다. 건축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왜 건축의 중요성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일반 대중들은 왜 건축의 중요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할까?', '왜 우리나라는 건축의 중요성을 교육하지 않는 걸까?'라는 한탄과 안타까움이었고, 심하게는 '우리나라는 건축문맹국가'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을 정도였다.

그러던 차에 운명처럼 다가온 것이 '건축문화사랑'이다. 건축문화와 도시문화에 대한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만들어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던 '건축문화사랑'의 발간 취지는 목마름을 달래주는 단비 같았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건축전문가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동참했다.

그 후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돌이켜 보니 보람도 컸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길이었기에 회의와 좌절도 느꼈고, 무엇보다도 능력의 한계를 절감했던 나날이었다. 그런 까닭에 부딪힘에 앞서서 아쉬움이 더 진하게 남는 10주년이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10년, 앞으로는 100년은 보다 더 성숙하고 알찬 꽃과 열매를 맺으리라 기대하며 애써 위안을 삼고자 한다. '건축문화사랑'이 더욱 높게 날아오르길 기대하며...

백이십팔 페이지 표정을 만들었다.

함께하는 친구처럼 걸어온 길은 때론 논쟁하고 다투기도 하고 잘못했노라 화를 내보기도 하고 원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사람 사는 이야기 속에서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며 기쁜 소식에 함께 웃고 행복을 나누는 우리가 있었다.

건축사, 학자, 행정가, 학생,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이 신문은 비평을 넘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과 대안이 있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기분 좋은 신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오늘도 이 글을 읽는 구독자 그분들의 눈이 우리 발걸음의 지표가 됨을 마음에 새기고 격려와 감사, 두려움과 설렘의 마음으로 하얀 백상지를 마주한다.

이천구년 십일월 십일 그 가을 함께 한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건축문화「사랑」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외 회원 일동

건축문화

사랑



건축사, 변화의 중심에 서다!
변화하는 건축, 진화하는 도시
2019.11.27~30. 서울코엑스 B홀



2019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 부문 대상(대통령상) '가파도 문화예술창작공간'

대한건축사협회

창간 10주년 기념 특별 기고문

건축문화사랑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신재욱 과장 / 광주광역시 신도시조성과

-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지역 및 도시계획박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 2030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면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은 소통과 공유의 장으로 역할을 하여 왔다. 제120호를 거치면서 특별한 점을 몇 가지 꼽아보면 첫 번째로 정보가 귀하던 시절의 수요에 따라 2009년 11월에 창간한 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간하며 건축인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매체를 창간한다는 것은 특정 비즈니스 하나를 창업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매체 고유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의미와 욕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소통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이 모였고 새로운 담론이 도출되어 지역 건축문화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한다.

두 번째로 시대별 지역의 건축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하며 열정을 가진 건축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건축물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기술 등 시대 가치의 커를 쌓는 대표적인 문화 결정체이다.

이탈리아 도무스(Domus)는 오랫동안 발간된 전문저널로 유명하다. 그 배경에는 열정이 넘치고 애정을 가진 건축가 데얀 서드직(Deyan Sudjic) 편집인을 말하곤 한다. 본지도 매월 발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일 건데 10년의 결실을 맺은 것은 건축사 회원님들, 교수님들, 공무원들, 건축 전공학생들 그리고 사·도민들이라는 주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세 번째로 예술이나 기술의 전문 분야 저널(journal)이 일반인에게 '딱딱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본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건축이란 장르를 알기 쉽게 유도하며 독자의 폭을 확장하여 대중에게 호평을 받았다고 본다. 지역 건축계 소식과 작품을 소개해 주며 담론을 형성한 본지를 볼 때면 땀과 열정을 쏟아낸 편집인과 회장단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다.

그동안 본지는 지역건축문화 창달과 부흥에 앞장서고자 노력을 해 왔다. 이제 본지는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건축문화의 커를 쌓는 대표적인 전문 언론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리적으로 국토의 변방이라는 취약점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지역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게 된 만큼 앞으로 10년을 기대해본다. 다시 한번 독자와 함께 건축문화사랑 신문의 10주년을 축하한다.

건축문화사랑 신문은...

1. 신문 발행 목적

목적	건축인과 일반인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목표	• 건축문화와 도시문화에 대한 소통과 공유의 장 • 건축·도시 문화에 대한 홍보 및 대중화 • 건축·도시 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보 공유

2. 연혁

- 2009. 07 : 뉴스레터 발행 추진분과위원회 구성(광주건축사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2009. 09 : 발행결정(타블로이드 규격, 격월 발행-광주건축사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2009. 09 : '건축문화사랑'으로 제호 확정(광주건축사회 제9회 이사회의)
- 2009. 11 : 건축문화사랑 창간호(1호) 발행(16면, 전면칼라)
 - 발행인 : 광주건축사회장 신정철
 - 편집인 : 박홍근 건축사
- 2010. 01 : 건축문화사랑 월간 발행 / 정기간행물 등록(2010-01-25)
- 2010. 03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공동 발행 합의(창간발행인 :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 2010. 11 : 건축문화사랑 창간 1주년 기념호(12호) 발행(24면, 4,000부 발행)
- 2011. 04 : 건축문화사랑 공동 발행인 변경(심상봉, 윤문곤, 이성엽 회장)
- 2012. 04 : 2대 편집인 취임(서재형)
- 2013. 04 : 건축문화사랑 공동 발행인 변경(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회장)
- 2015. 04 : 건축문화사랑 공동 발행인 변경(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회장)
- 2016. 03 : 3대 편집인 취임(정명환)
- 2018. 04 : 건축문화사랑 공동 발행인 변경(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회장)
- 2018. 05 : 4대 편집인 취임(강동영)
- 2019. 11 : 건축문화사랑 창간 10주년 기념호(120호) 발행(16면, 2,000부 발행)

3. 사진으로 보는 건축문화사랑 신문 활동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 본 석**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토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회장 김준식 외 회원들

부회장 김경만 외 회원들

대우회장 공정섭 외 회원들

인천회장 류재경 외 회원들

광주회장 강현구 외 회원들

대전회장 김용각 외 회원들

울산회장 김영호 외 회원들

세종특별자치시회장 박진만 외 회원들

경기도회장 왕한성 외 회원들

강원도회장 김창기 외 회원들

충청북도회장 이근희 외 회원들

충청남도회장 김양희 외 회원들

전라북도회장 이길환 외 회원들

전라남도회장 조연준 외 회원들

경상북도회장 방재원 외 회원들

경상남도회장 김재석 외 회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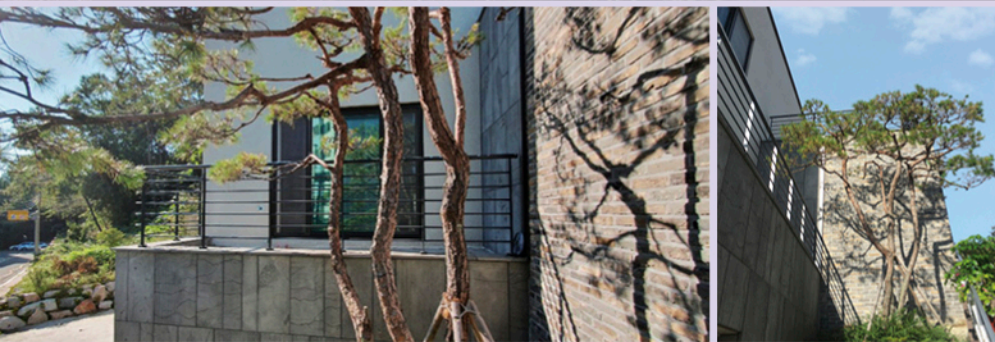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회장 김상연 외 회원들



운림제

이기수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1201호
Tel. 062-233-4800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5-7 / 대지면적 : 623.87㎡ / 건축면적 : 114.77㎡ / 연면적 : 300.60㎡ / 건폐율 : 18.40% / 용적률 : 48.18%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개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도끼눈처럼 쇄도하였던 본 사이트는 무등산 자락 보전녹지지역에 속한다. 계획 시작부터 난공불락이었다. 해발지 표고 100m 이하의 범주 내에서만 허용되는 건축행위는 그 자체로만 극복해야 할 매력으로 다가왔다.



#아키디자인 2020 정식출시 업데이트 알림

New ArchiDesign

아키디자인 2020

정식출시

9월25일 새로운 아키디자인 2020이 정식 출시했습니다!

구매문의 1899 - 9260 자세한내용은 www.midasCAD.com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MIDAS | MIDAS ARCHIDESIGN

- 1 건축설계특화 편의기능 추가 (창호, 계단, 단열재 등)
- 2 Dwg 공동작업자를 위한 협업기능 강화
- 3 압도적인 데이터 처리 속도와 강력한 파일복구 기능

광주건축사회, 2019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 주관으로 지난 11월 12일 화순군 무등산CC에서



2019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11월 12일 전남 화순군 무등산 CC에서 개최됐다.

광주 건축사골프동호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

장을 비롯해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 박재홍 회장 등 골프동호회 회원 및 참가 신청 회원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강현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광주건축사회원들의 단합과 우의 증진을 이뤄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를 위해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을 비롯해 이경행 부회장, 강석훈 부회장, 골프동호회 박재홍 회장, 광주전남건축사협동조합 신정철 이사장, 서구 협의회 문창식 회장, 동구협의회 길종일 회장, (주)주성 김재철 대표이사, 광주건축사신헌, 일양약품 등이 후원했다.

광주건축사회, 관내 건축 관련 공무원 대상, 우수 공무원 선발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전 회원들에게 추천받기로... 언론 등에 적극 홍보도

광주건축사회가 광주시 관내 건축 관계 우수공무원 선발에 나섰다.

지난 11월 1일 광주건축사회는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내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 회원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건축직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받기로 공지했다.

회원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며 추천 기간은 12월 31일이다. 이번에 추천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2020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장과 상급 기관에 우수공무원 추천과 함께 언론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현구 회장은 “건축 행정의 건실함을 도모하고, 건축사의 위상 강화와 함께 건축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이번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광주시와 전남도에 세움터 ‘협의결과보기’ 기능 사용 활성화 계도 요청

각 구와 각 사·군에 해당 사항 지도 전달... 적극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성과

광주건축사회가 최근 행정 관청에 건축 행정 관련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변화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0월 광주건축사회에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 “관내 각 구 및 사·군의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의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은 인허가 지연사항이며, 인허가 기간 및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허가 지연의 상당수 원인이 인허가 협의부서의 협의 지연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더불어 “민원인이 협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화신이나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에 세움터의 ‘협의결과보기’ 기능 사용을 활성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각 행정기관에서는 각 자치구에 세움터의 ‘협의결과보기’ 사용을 적극 협조 당부하는 내용으로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구 회장은 “향후에도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2019년 제23회 광주광역시건축상 수상작 발표

비주거 부문 금상에 남구 양림동 ‘아크레타 양림’ 등 비주거 4점, 주거 2점 선정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10월 17일 올해 제2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을 발표하며 비주거 부문 최고상인 금상에 남구 양림동 근린생활시설인 ‘아크레타 양림’을 선정하고, 주거 부문은 금상 수상작 없이 은상, 동상만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는 최근 5년 이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8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제2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을 공모해 건축사, 대학교수 등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비주거 부문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과 주거 부문에 은상 1점, 동상 1점 등 총 6개 작품을 선정했다.

이들 선정작들의 설계건축사와 시공자에게는 지난 10월 29일 라마다프라자광주호텔에서 열린 ‘건축인의 밤’ 행사에서 표창장이 수여 됐다.

강필서 심사위원장((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은 심사평을 통해 “비주거 부문 금상을 수상한 ‘아크레타 양림’ 작품은 기존에 있는 한옥과 감나무, 골목들을 잘 살려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고,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탄생 시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하고 있어 광주시의 선결 과제이기도 한 구 도심 활성화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자세한 수상작 목록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건축인의 밤도 29일 진행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가 후원하는 제1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지난 10월 30일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회장,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전재우 부회장 등 내외빈과 시민 및 건축사,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막식과 함께 11월 2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행사로 올해 광주의 우수 건축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23회 광주시 건축상 수상작품 전시’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소속회원들의 회원전이,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의 100인 전 등이 선보였다.

또한 일반 공모전 행사로 진행된 ‘건축·도시 사진공모 수상작 전시’를 비롯해 광주지역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의 수상작 전시가 진행되는 한편, 체험프로그램으로 건축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건축체험교실’과 건축에 대한 각종 민원에 대해 여성 건축사들이 직접 무료로 상담해주는 ‘건축민원상담’ 코너가 진행됐다.

전야행사로 10월 29일 라마다프라자광주호텔에서 광주지역 건축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2019년 광주건축인의 밤’이 개최되었으며, 이 행사에서 광주시건축상 시상 및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대상작 시상, 자랑스러운 광주건축인 추대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자랑스러운 광주건축인으로선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故 이수곤 교수가 선정됐다.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제21회 미술전 열고 시민들에 작품 선보

지난 11월 4일 북구청 갤러리에서 오프닝 열고 30여 점 작품 전시...



올해로 제21회를 맞은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미술전이 지난 11월 4일 광주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오프닝을 갖고 11월 9일까지 전시회를 진행했다.

오프닝에는 광주건축사회 강석훈 부회장을 비롯한 북구청 문인 구창장,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회장, 광주건축사미술동

호회 김금진 회장과 북구청 건축직 공무원, 일반 시민 등 50여 명이 함께 했다.

김금진 회장은 이 자리에서 “건축사로서 건축 외 미술 작품 활동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문인 북구청장님 및 문화예술과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한다”고 말했다.

광주 회원동정

• 임회

- 김상문 건축사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25, 3층

• 변경(소재지)

- 김화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코모 / 광주 동구 동명로 25, 3층

• 결혼

- 김성곤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문 / 장남 결혼 - 11월 9일(토) 오후 2시

- 손권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목우 / 장남 결혼 - 12월 8일(일) 오후 12시 30분

• 부고

- 정윤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정윤 / 시부상 - 10월 13일(일)

- 김일중 건축사 / 매시하이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0월 21일(월)

한국수력원자력 중서부권 업무지원시설

최기성 건축사 / (주)에스지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전남 순천시 왕지4길 5, 3층 301호 / Tel. 061-724-8698



대지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1030 / 대지면적 : 8,322.00㎡ / 건축면적 : 1,175.54㎡ / 연면적 : 1,870.39㎡ / 건폐율 : 14.13%
용적률 : 22.48%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 지역 인재 육성 위해 3백만 원 기탁

지난 10월 24일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기탁...



지난 10월 24일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회장 문성식)는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정종순)에 3백만 원을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기탁한 장흥지역건축사회는 그동안 군민 주거여건 개선 및 농업시설 설계 등을 도맡아 하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또 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해 희망하우스 건축을 돕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무료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다.

문성식 회장은 “지역 현장을 누비며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도 지역의 큰 숙원 사업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알고 이번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건축사회, 고등학생 대상 ‘전문직업인 강연회’ 진행

지난 10월 23일 나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건축사 직업 소개 및 진로 상담 등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10월 23일 나주시 나주고등학교 1학년 20여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인 강연’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에 이어 전남건축사회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설계할 청소년들에게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진행했다.



장진영 건축사는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건축 분야에 대한 이해와 건축사에 대한 정보를 강연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건축사들에 대해 알리는 기회가 자주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지역건축사회, 주거 취약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진행

지난 10월 관내 주거 취약계층에 도배, 장판, 전기배선, 도색작업, 지붕 보수 등



전남 여수지역건축사회(회장 조익선)는 지난 10월경 관내 농어촌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대상자는 여수시 소라면에 위치한 독거노인의 주택으로 도배와 장판, 전기배선, 내부 도색작업, 지붕 보수 등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통한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조익선 회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건축 전문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조연준 건축사사무소 창조

전라남도건축사회 부회장 서계원 우리건축사사무소서건축

전라남도건축사회 이 사 손병완 영우 건축사사무소
김 정 대진 건축사사무소
이정심 가인 건축사사무소
한만호 한성 건축사사무소
추현호 건축사사무소 미래

전라남도건축사회 감 사 백재봉 백 건축사사무소
장인영 장인영 건축사사무소

목포지역건축사회 회장 김동만 대림 건축사사무소
순천지역건축사회 회장 조익선 건축사사무소 선진
여수지역건축사회 회장 김용균 유로 건축사사무소
나주지역건축사회 회장 최세호 빛가람 건축사사무소
광양지역건축사회 회장 박종경 (주)가야 건축사사무소
무안지역건축사회 회장 정정진 건축사사무소 정원
장흥지역건축사회 회장 문성식 AUD 건축사사무소
영암지역건축사회 회장 신승민 SM 건축사사무소
해남지역건축사회 회장 정용재 태진 건축사사무소
화순지역건축사회 회장 범 정 범 건축사사무소
장성지역건축사회 회장 박종영 누리 건축사사무소
고흥지역건축사회 회장 남윤홍 해동 건축사사무소

-전라남도건축사회 조연준 회장과 임원, 지역건축사회 회장 그리고 회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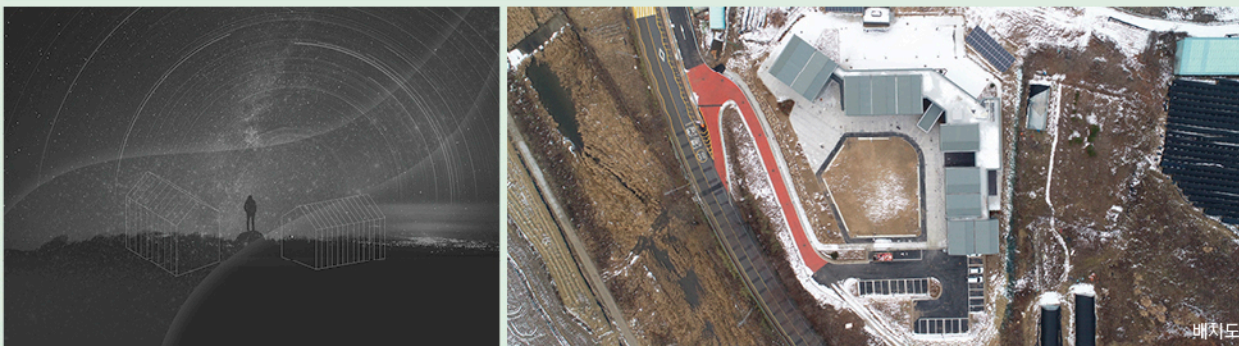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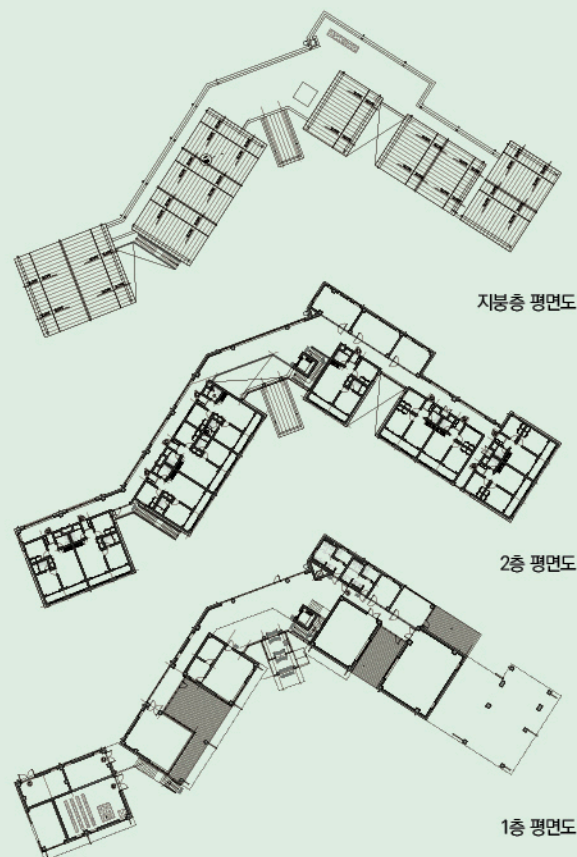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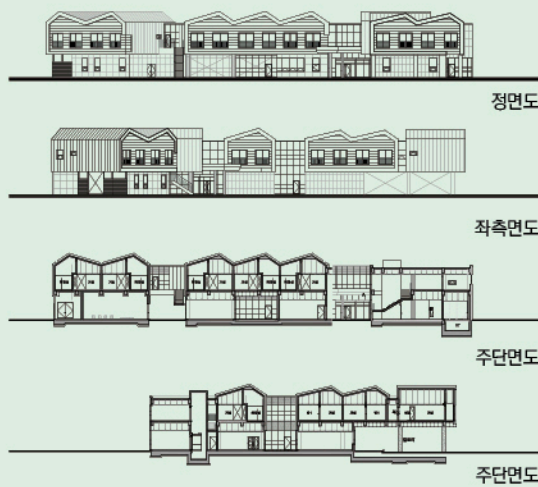


한빛이 빛나는 밤에...

본 프로젝트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복지와 주변 지역의 재생 개념으로부터 시작한다. 대상지는 지역의 주거군, 그리고 주거개선사업을 통한 주민편의시설들과 관계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서부권 업무지원시설은 대지의 레벨과 녹지 등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는 컨텍스트를 이용해 각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유연하게 포용하고 소통시킨다.

이는 업무와 휴게,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시설이 과거의 단순 사무시설의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를 담는 그릇이 되고, 또한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의 생기를 만들고 사람의 온기를 찾아주는 스스로 성장하는 지역거점 공간이 되길 바란다...

**전남도, 순천시 도시재생 우수 모델 전국 한마당 행사 열어**

지난 10월 24일부터 3일간 학술행사 우수사례 성과 공유...

전라남도가 국토부, 순천시와 함께 10월 24일부터 3일간 순천 향동·중앙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전문가, 공무원, 활동가, 청년, 시민들이 함께하는 '2019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2019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홍보, 우수 사례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을 슬로건으로 치러졌다.

첫날인 24일 '도시재생 학술행사', 둘째 날인 25일 '소통과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정책홍보관, 청년존, 시민 체험존, 이벤트 프로그램, 장터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고, 문화 공연 및 체험행사 등이 진행됐다.

실제로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전국의 도시재생 성공모델로 평가받아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사회적 경제조직 40개 육성, 유동인구 160% 증가, 주민 만족도 91% 달성 등 놀라운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목포 야행, 근대건축물과 원도심 매력 뽐내며 마무리

올해 처음으로 2차례 진행... 근대역사문화자원 관광 상품 가능성 확인



올해 첫선을 보인 목포 문화재 야행(夜行)이 근대건축물과 원도심의 매력을 뽐내며 마무리됐다.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야간형 문화 향유 프로그램인 목포 야행을 '낭만 항구 목포로 떠나는 밤거리 문화축제'라는 주제로 9월 7~8일(1차), 10월 26~27일(2차) 원도심 일원 및 근대역사문화공간 주요 도로 등에서 각각 개최했다.

목포 야행은 문화재가 있는 야간 경관 즐기기 야경(夜景), 밤에 걷는 문화재 탐방 야로(夜路), 역사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야사(夜史), 역사와 문화재를 활용한 융합 예술전 야화(夜畵), 역사를 소재로 한 공연 야설(夜說), 목포 먹거리 야식(夜食), 목포 야행 기간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시장 야시(夜市), 체류 관광객을 위한 숙박 프로그램 야숙(夜宿) 등 8야(夜)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1차는 무대공연, 전시, 체험 등이 진행됐고 많은 관람객이 찾아 근대역사문화자원의 관광 상품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2차는 오전에 내린 비로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무대 공연 대신 버스킹 공연이 전시, 체험 등과 함께 진행된 가운데 많은 관람객이 찾아 목포 야행의 경쟁력을 재차 확인했다.

목포 원도심 일원은 구)일본영사관,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등 근대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고, 120년 전 조성된 근대 도로와 골목길이 원형대로 남아있어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학생기고 _ 양민희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마침내 5년 동안의 빛을 발하다! - 졸업작품 전시회**

지난 10월 23일 수요일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에서는 졸업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작품전시회를 앞둔 일주일 동안의 모든 학생들이 5학년 선배님들의 작품 모형에 힘을 쓰면서 점점 완성되어가는 작품의 모습을 한 마음으로 열심히 도왔고 5학년들은 일주일

내로 다 마무리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서둘러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모두가 지쳐 있던 전시회 하루 전날, 교수님들께서는 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하는 학생들을 위해 치킨과 분식들을 준비해 오셨고, 이 때문에 모두가 힘을 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작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다.

마침내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건축디자인학과 졸업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자신의 작품 앞에선 5학년들은 5년이란 학교생활의 끝으로 아쉽기도 하면서 중간 평가 이후로 많은 발전을 통해 그동안의 실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며 노력을 쏟았기에 후련함이 교차한다.

한편 4학년들은 수능 끝난 고3들을 바라보는 고2의 마음으로 졸업이 마냥 부럽기도 하면서도 선배님들의 작품만큼 잘 할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지난해보다 발전된 모든 학생들의 작품들로 내년 전시회를 앞둔 4학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건축디자인학과 작품전시회를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전남 회원동정**• 전입**

- 윤영석 건축사 / 천지인 건축사사무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69

• 변경(소재지 및 상호)

- 전재식 건축사/ (주)강산 건축사사무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899, 2동 202호

• 변경(소재지)

- 박세진 건축사 / (주)예가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죽림3길 7

• 결혼

- 한우림 건축사 / 우림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10월 12일(토)

• 부고

- 김미영 건축사 / 금양이앤씨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0월 12일(토)



띠앗채
안경호 건축사 / (주)도시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28, 4층 402호 / Tel. 063-714-3211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50길 11-2 / 대지면적 : 494.10㎡ / 건축면적 : 179.28㎡ / 연면적 : 247.19㎡ / 주용도 : 단독주택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한식목구조(전통한옥), 철근콘크리트조(지하) / 주요마감 : 한식기와, 한식 전벽돌 및 회백마감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성료
지난 10월 25일 개막하여 6일간... 전북도민과 함께 여는 건축문화제로써 큰 호응 받아



전라북도 건축문화제인 연합회(회장 이길환)는 지난 10월 25일 전북도청 기획전시실과 1층 로비에서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를 개최하고 6일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는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20회를 맞이하였으며, 도민과 함께 하는 건축문화 축제로서 전라북도 건축 발전과 건축인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20주년을 맞이하여 ‘건축문화, 감성과 미래를 담다’라는 주제로 건축문화상 수상작 36점과 어린이 집 그리기, 백일장 대회 등 도민참여 행사 수상작 25점을 비롯해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 역대 건축문화제 재조명, 도시 랜드마크, 과학과 디자인을 엮는다 DDP 건축 과정 전시, 한옥건축 모형 전시와 건축 관련 학술대회, 명사 초청 강연 등 다양한 건축문화 행사가 열렸다.

특히, 개막식에는 300여 명의 건축 관계자 및 초·중·고·대학생들의 수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건축문화상과 어린이 집 그리기, 건축 올림피아드 등 도민참여 행사 시상식과 같이 열렸다.

건축문화상 수상자로는 사용승인 공공 부문에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한 ‘장수군청사 건립사업’, 사용승인 일반 부문은 (주)건축사사무소 핸드 박영일 건축사가 설계한 ‘파머스 빌리지-농부들의 숙소’, 학생부 전체대상

부문은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연기영의 작품인 ‘Deck Dock Dwelling’이 차지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어린이 집 그리기 전체대상에는 전주효림초등학교 2학년 백지은 학생이, 백일장 대회 대상에는 전주교대 전주부설초등학교 5학년 손하량 학생이, 건축 올림피아드 대상에는 이리고등학교 2학년 김민서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길환 회장은 “도민들의 요구에 공감하고 뜻을 같이해나가자는 차원에서 다양한 건축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축문화제를 개최하였고, 6일간 큰 호응을 받았다”고 말하며 “20회를 맞이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더욱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건축문화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건축문화상의 일반 부문 수상자 현황이다.

▶ 일반 부문 (사용승인 공공 분야)		
훈격	작 품 명	성 명
대 상	장수군청사 건립사업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 이길환 건축사
금 상	오죽정인	상상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이재현 건축사
은 상	미륵산골	(주)맥 건축사사무소 이균수 건축사
동 상	담양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	강천 건축사사무소 김병수 건축사

▶ 일반 부문 (주거·비주거·한옥분야 분야)		
훈격	작 품 명	성 명
대 상	파머스 빌리지 “농부들의 숙소”	(주)건축사사무소 핸드 박영일 건축사
금 상	주거) 안향재	군산대학교 문창호 교수
	비주거) 산죽등대	(주)건축사사무소 메타 우의정 건축사
	한옥) 향기에 취해 거닐다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빙인섭 건축사



2009년 11월 창간과 함께 전북과 광주, 전남 지역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건축문화사랑’이 어느덧 창간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건축과 도시·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북·전남·광주 건축사 편집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건축문화사랑’이 앞으로도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이길환 회장 외 회원 일동



형제간의 돈독한 사랑을 담은 집
서울시 은평 한옥마을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과 도심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전통한옥의 평면구조를 존중하여 도로면에 행랑채를 배치하고, 대지 안쪽에 안채를 배치한 후 부속 시설로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ㄷ자 평면으로 구성하였다. 세대 간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안방과 자녀방을 분리하고, 대청과 주방 등의 공간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식당과 누마루는 사시사철 변하는 북한산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집의 명소이다. 건축주의 넉넉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안마당과 주차공간을 분리하여 한층 아늑한 마당 공간을 만들었고 현관의 작은 툇마루는 방문객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배려의 마음이 담겨있다.



훈격	작 품 명	성 명
은상	주거) 송천동 상상주택	건축사사무소 예림 정창석 건축사
	비주거) 정음의료방사선정도관리센터	(주)건축사사무소 빅 진태호 건축사
	한옥) 띠앗채	(주)도시 건축사사무소 안경호 건축사
동상	주거) 모악호수마을 L-1 단독주택	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주영민 건축사
	비주거) 비상	건축사사무소 세운건축 정용균 건축사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전북건축사회와 교류차 방문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라북도 방문... 격년제 상호방문 형식



전북건축사회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정보와 초고속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통한 창의적 능력개발을 위하여 국제교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및 일본 가고시마현 건축가협회와 교류 협정을 맺고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중국 강소성에서 전라북도를 방문하고, 전북건축사회는 일본 가고시마현을 방문하는 해이지만, 일본의 무역 제재에 따른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 교류는 잠정보류하기로 하고 올해 행사는 취소한 상태이다.

전북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매년 10월 하순경에 개최되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행사에 중국 및 일본의 작품을 출품받아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일본 가고시마현 건축작품전시회와 중국 강소성 건축문화행사에 전라북도 작품을 20~25점을 출품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중국·일본 건축의 시대적 트렌드 변화와 각국의 건축이념이나 정책 등이 어떻게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지 비교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 대하여 연구 검토되고 있다. 또한, 격년제 상호방문을 통하여 건축사들의 활동 사항과 상호정보 교류를 통하여 친환경, 저에너지, 탄소 감축 등 지속가능한 건축을 통하여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추구해야 할 건축이념의 실천을 위한 방향 탐구와 구도심 재생과 리모델링 등 나라마다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건축정책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함으로써, 건축 전문가 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 강소성에서 주최하는 2018년 제5회 자금상 건축 및 환경 설계경진대회에 도내 대학생 5팀이 참여하여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최문석, 김명희, 김현화 학생팀이 The Scent of Doosan이란 작품으로 학생부문 우수작품상 3등상(상금 500 위안)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고, 2019년에도 8팀이 출품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전라북도를 방문한 중국 강소성 방한단(16명)은 익산 과학교육원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등 도내 건축물 견학과 부여 백제문화단지 및 광주광역시시의 아시아문화전당과 도시재생 및 역사문화마을을 지향하는 양림마을 등을 탐방했다.

방문 마지막 날에는 전북 도청을 방문하여 전라북도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전시행사를 둘러보고, 건축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유우홍 단장은 “건축 전문가 단체인 전북건축사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양국 간의 건축문화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도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북건축사회, 도내 건축사 회원 및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지난 11월 5일 익산 함라산 둘레길에... 회원 및 회원 가족, 직원 등 70여 명 참석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11월 5일 익산 함라산에서 도내 건축사 회원 및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회원 및 회원 가족, 직원 등 70여 명

참석했으며 함라산 둘레길을 걸으며 회원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했다.

한 회원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회원들과 친목을 다지는 점에서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도회 발전에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전주지역 임대현 건축사, 전주시 완산구 저소득층에 성금 기탁
지난 10월 17일 완산구청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 기탁



전주지역 건축사사무소 보원 임대현 건축사가 지난 10월 17일 완산구청을 방문하여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건축사사무소 보원 임대현 건축사는 전주시 주거복지 공공건축가와 전주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주거복지와 도시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주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임대현 건축사는 이번 전달식에서 “전주시 주거복지 공공건축가로서 활동하면서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보게 되었고, 조금씩 선선해지는 날씨 속에 우리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싶었다”고 참여의 계기를 말했다.

전북 회원동정

- **변경(상호)**
 - 김주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원 → (유)건축사사무소 가원
- **부고**
 - 윤미순 건축사 / 미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0월 14일(월)
 - 양우현 건축사 / 백현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10월 28일(월)

제2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 부문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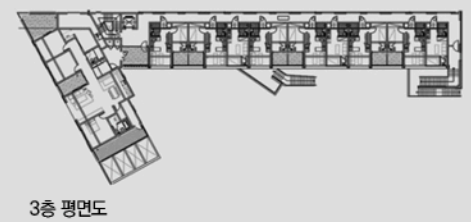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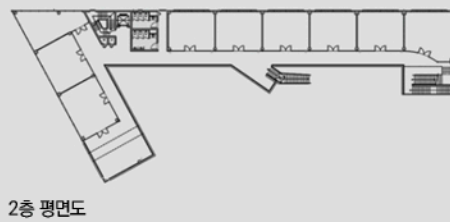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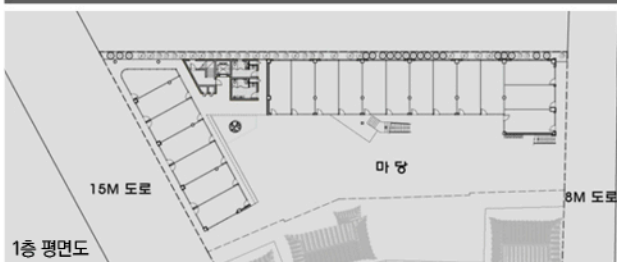
비주거 부문 금상 '아크레타 양림'

설계자 : 김준철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에코플랜
시공자 : 이승현 대표 (인벤테라건설(주))

옛 한옥으로 형성된 양림마을에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철거를 통한 신축보다는 지역과 어울리는 공간 조성을 우선으로 하여, 지역이 가지는 장소성을 훼손하지 않고 자리 잡기 위해 건물의 규모 및 형태에 대한 열린 접근이 필요하였다. 그 결과로 공유와 배려의 공간을 형성하였다.

마당을 중심으로 아크레타 양림과 한옥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사람들로 채워진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건물과 주변 경관의 조화를 위해 위압적이지 않도록 형태를 분절하였고, 열린 외부공간을 만들어 골목길의 동선을 내부로 끌어들이어 양림동의 경관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제2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주거 부문 수상작



주거 부문 은상 ‘녹원재’
설계자 : 김정선 건축사 (엘에이엔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지국섭

어렸을 적 단독주택에 살았던 건축주는 아파트의 획일적인 공간 제약 때문에 늘 단독주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 10주년을 맞아 온 가족을 위한 선물로 주택을 짓게 되었다.

아이들 때문에 학교와 가까운 도심지에 너무 개방적이지 않으면서 저녁 시간을 오롯이 사용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부형태는 중정을 품은 □자 형태 집의 큰 틀을 바탕으로 거실, 주방, 주차장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였고 세월의 흔적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벽돌의 정갈한 외관의 모습을 제안하였다.



주거 부문 동상 ‘수완동 주택’
설계자 : 임태형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시공자 : 양동환 대표 (선호수 주식회사)

수완동 주택은 지역의 상세계획지침을 존중하면서 외관 디자인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여, 부지를 포함하는 주택단지와 인근 주택가에서 가장 간결한 매스의 형태와 디테일을 지닌 건축을 지향하였다. 이는 공간의 원형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강조하여 무질서한 도시경관에 중량감 있는 시각적 좌표가 되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단순 기하학에 가까운 매스들을 조합하고, 크고 작게 비워낸 부분을 통하여 내·외부의 경계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비워낸 크기와 위치는 다분히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남향의 열린 중정이 있는 ‘ㄷ’자형 평면을 만들어 냈다.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05번길 20-5 / 대지면적 : 286.40㎡ / 건축면적 : 140.72㎡ / 연면적 : 218.67㎡
건폐율 : 49.13% / 용적률 : 76.35% / 용도: 단독주택 / 규모: 지상 2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일반 부문(사용승인 공공 분야) 대상



장수군청사 건립사업

설계자 : 이길환 건축사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

400년 노거수 의암송(천연기념물 제397호)이 새롭게 단장된 장수군청사의 중심에 선다. 그 의기도 기풍 당당한 의암송은 무질서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갓 피어난 사과꽃같이 아름다운 장수군청사와 별관동(리모델링), 의회동(기존유지)이 위요하고 있다.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각 개방된 공간은 외부와 내부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이어준다. 2, 3층 브리지는 층과 층을 이어주는 매개가 된다. 나무, 물, 건물, 군민이 하나의 자연의 질서를 모티브로 각 요소는 유기적, 기능적 동선, 색채가 조화되어 군민의 마음에 친근감마저 느끼게 한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보호수인 은행나무도 어느덧 가을 결실을 맺고 있다.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일반 부문(주거·비주거·한옥 분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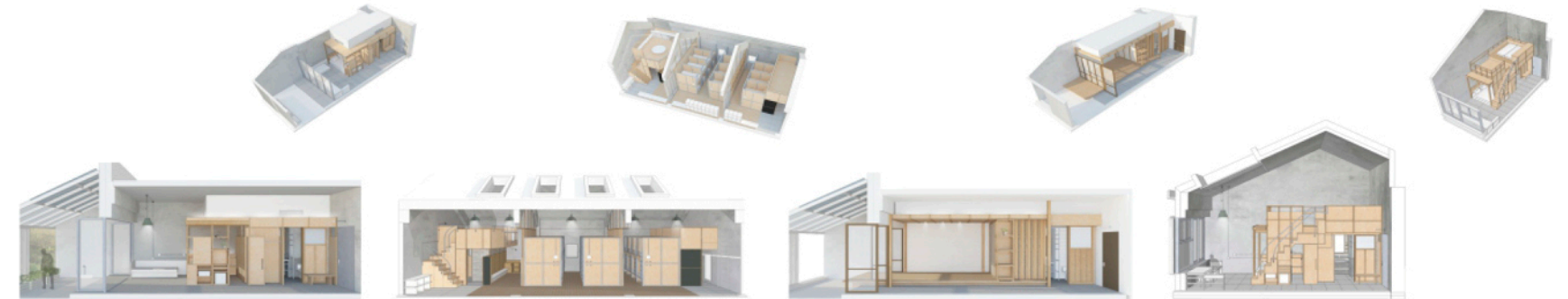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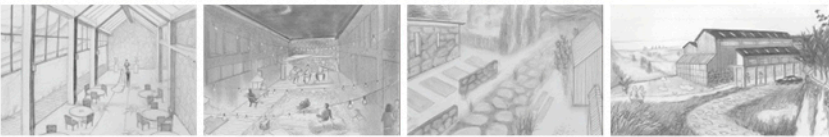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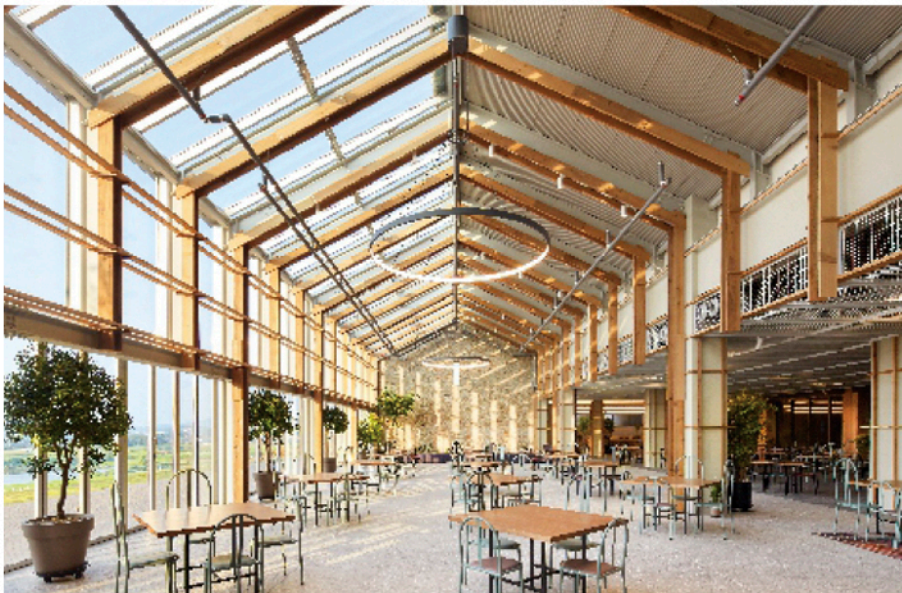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399-1 외 2필지 / 대지면적 : 15,300㎡ / 건축면적 : 3,085.40㎡ / 연면적 : 6,190.46㎡ / 건폐율 : 20.17% / 용적률 : 38.52%
규모 : A동-지상 3층, 주차동-지상 1층, B동-지하 1층-지상 1층, C동-지상 1층 / 용도 : 숙박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주요마감 : 노출콘크리트, 목재사이딩

파머스 빌리지 “농부들의 숙소”

설계자 : 박영일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핸드

공간적 형태가 지닌 스타일을 상하농원의 건물에서 차용 커다란 햇간과 창고를 개조한 듯 분위기를 자아내는 계획 단순하지만 단아한 조형성을 품고 있는 전통적, 일반적인 형태적 요소를 지닌 소재 박공 형태의 지붕과 목재, 자연석으로 마감하여 전원적인 분위기 연출 노동의 건강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는 누추하지 않은 소박한 공간 조성 큰 규모의 건물이지만 작은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을 자연스럽게 재현 단순한 숙박이 아닌 건강한 먹거리와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체험



사랑에서 _ 예순 번째

건축과 사회학

건축은 사회구조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질까?

건축에 정주하는 인간은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의 관계 속에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 건축은 사회현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 사회적 패러다임에 대응하며 함께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건축은 유기적이며 생물학적이다. 사회학은 인간 사회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프랑스 사회학자 오귀스트 콩트는 자연 세계를 분석하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으로 인간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크 지멜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다양한 역사적 시기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사회학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시대별 사회학적 관심 주제는 1950~60년대는 농촌, 도시, 인구, 가족, 근대화 등이며 1970~80년대는 사회구조 및 사회 계급, 노동문제 등이 대상이었으며, 80년대 후반부터는 민주화 및 세계화 현상에 이어 환경문제, 시민사회, 문화, 여성 등으로 점차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대를 담는 건축은 6·25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조직인 가족 공동체의 정상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는 주택의 정비로 이어졌고 이후 경제 복원을 위한 생산설비의 필요성, 값싼 노동력의 집단 거주 효율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장건축과 기숙을 위한 공동주택이 건축되고 이어 도시화 현상이 가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원이나 정보 등에 대한 통제나 접근이 사회집단에 따라 위계적 서열화되는 사회 불평등 현상 즉, 사회 계층화를 가속시켰고 이는 노동자, 여성 등 노약자의 인권이 유린되는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사회운동인 민주화 운동, 환경운동으로 이어진다. 이후 건축은 취약계층을 위한 거주환경을 돌아보고 소수 약자를 위한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고소비가 기후 문제로 나타나면서 국제기후 공동체는 고효율, 저탄소, 친환경 등의 슬로건으로 가전, 자동차, 산업시설 등 석탄 연료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루 종일 환경에 노출되고 건축은 더욱더 친환경적이고 기능적 공간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슬림화된 조직,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존재감 경험 등과 함께 건축은 1인을 위한 공간, 나만을 위한 시간 향유, 그리고 문화 소비에 관대한 패턴 양상을 보인다.

건축은 땅 위의 건물로 머무를 수 없다.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축조되는 건축은 언제든 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천십구년 십일월 팔일, 마루로 육십칠
자문위원_정명환 건축사(a2700@daum.net)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作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나무심는 건축인, 2019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선정

개인, 아파트, 공공 부문에 총 31곳 작품 응모, 우수 공간 3곳 선정



개인 부문 '풍암전원교회'



아파트 부문 '학동 아이파크'



공공 부문 '오월 어머니집'

나무심는 건축인(대표 신정철)은 '2019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에 서구 풍암동 '풍암전원교회', 남구 학동 '아이파크', 남구 양림동 '오월 어머니집' 등 3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은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 자원을 보전하고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올해 공모에 개인, 아파트, 공공 부문에 총 31곳이 출품되는 등 많은 시민이 관심을 보였다. 이 가운데 공공성, 기능성,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각 분야별 한 작품씩 3곳 작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진행된 '제1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전시됐다.

신정철 대표는 "이번 공모전에도 우수한 작품이 대거 출품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광주시 경관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품격 있는 공간이 탄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강강수, 이성업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강동영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전담기자 박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편집위원 정관성,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설혜순, 이원규, 정영진, 임현정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건축물 내진보강 · 안전진단 · 보수보강 우수기업”

업종 : · 건축설계 / 감리업 (광주광역시-건축사사무소-223호)
· 안전진단전문기관 (광주 제 28호)
· 부동산개발업 (광주 130004)
· 건설업-건축공사업 (05-0734)
·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광주 북 2009-2-4)
· 기업부설연구소-내진보강설계 및 연구개발 (제 2015115259호)
· 벤처기업 (제 20170109115호)
· 중소기업(INNO-BIZ) (제 150402-01346호)

특허품목 : · 길이조절 기능을 갖는 제진형 가새장치 및 이를 이용한 브레이싱 공법 (제 10-1332602호)
· 제진형 가새장치 및 이 가새장치를 이용한 브레이싱 공법 (제 10-1176374호)
· 건축 구조물용 강재플레이트 제진 장치 및 이 제진 장치를 이용한 진동 감지 장치 (제 10-1718385호)
· 방화 구획 기능을 갖는 창호 시스템 (제 10-1497963호)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호용 경량 하이브리드 폴리머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시공공법 (제 10-1498196호)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309번길 41-1 (주)에이엠지그룹 사옥 Tel. 062) 528-1993 Fax. 062) 523-0764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Architecture Management Global

대표이사 정명철
공학박사

건축문화 *사랑* 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강석훈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선명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 6-15, 5층 T. 062-972-8159 / F. 062-973-8159	강필서 건축사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27, 디자인센터 609호 T. 062-611-5701~5 / F. 062-611-5704	강형선 건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메카 광주 서구 화정로 293, 4층 T. 062-351-7400 / F. 062-369-6745	길종일·오금열 건축사 (주)다이지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장동로 41, 4층 T. 062-375-2800 / F. 062-375-7100
문창식 건축사 우리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오월로15번길 28-19 T. 062-511-2500 / F. 062-511-2505	박형갑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토형 광주 북구 설죽로 455번길 4-7 T. 062-575-2412 / F. 062-575-2413	심상봉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AD그룹 광주 서구 품암순환로188번길 29 T. 062-527-5000 / F. 062-523-3700	양병범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광주 서구 품금로 61, 2층 T. 062-267-2267 / F. 062-653-2268
이경행 건축사 아키씨엠 건축사사무소(주)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 212호 T. 062-232-4981 / F. 0505-516-4000	이영문 건축사 이영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29-5, 2층 202호 T. 062-515-0432 / F. 062-515-0436	정태호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광주 북구 무등로 255, 2층 T. 062-512-8043 / F. 062-527-8041	조휴환 건축사 수전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장신로 337, 202호 T. 062-951-7577 / F. 062-454-7511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안길전 건축사

남문교회
 건축설계·감리 전문회사
 광주 남구 서오층석탑1길 7-1 / T. 062-233-7151~2 / F. 062-233-7153

(주)건축사사무소 정호
 대표 정인채 건축사

건축설계·공사감리·개발사업기획
 광주 서구 상무대로867번길 16-12, 2층
 T. 062-383-5513~4
 F. 062-384-5515
 E. arc2010@hanmail.net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대표 한명석 건축사
 (광주건축사회 감사/광주건축사실험 감사)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늘솔마을 단제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0, 3층 / T. 062-352-0415 / F. 062-352-0416

일우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선영 건축사
 (광주건축사실험협동조합 부이사장)

군산 은파 병원
 건축설계용역 및 공사감리, 개발사업컨설팅
 광주 서구 품암순환로128번길 63, 2층 / T. 062-367-7151 / F. 062-367-7153 / 3677151@hanmail.net

SINCE 1987년
대한민국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회원 344명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국제건축문화교류사업, 건축문화진흥사업 등으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일조하고 있습니다.

회장 / 이사장
강현구
JOHYUNG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15, 7층
 T. 062.653.8122 F. 062.522.8122
 E. dooo21c@hanmail.net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T. 062-521-0025-6 / F. 062-528-0026 / E. gjkara@empas.com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T. 062-527-8893 / F. 062-528-0026

광주건축사실험협동조합
 T. 062-527-8890-1 / F. 062-528-0026 / E. cu08118@cu.co.kr

대학연구진과 개발연구로 탄생한 “EQ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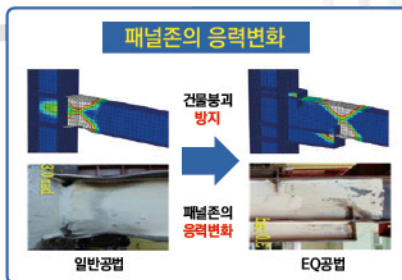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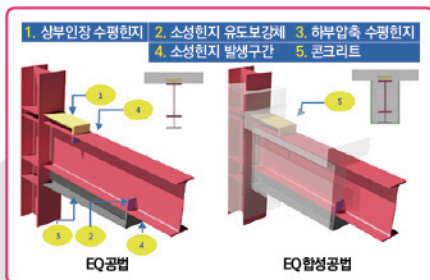


건축물의 내부기둥이 없어
최고의 공간활용

V.E
검토
무료

“철골예산 원가절감 40~15%”

- ▶ 내부기둥이 없는 ‘철골 접합부 내진보강공법’
- ▶ 철골 구조검토 및 구조설계
- ▶ 무료 경제성(V.E) 구조검토



- ▶ 신기술 ‘내진강접합시공공법(EQ공법)’ 개발 주목
- ▶ H형강 원자재 활용 접합부 보강으로 안정성 극대화
- ▶ 횡적 구조설계 강재량 감소, 공간 ↑, 공사비 40% ↓
- ▶ ‘단부보강형철골구조물’ 특허 획득 내진성능 강화
- ▶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안전성·경제성 극대화

(주)경서
EQ구조엔지니어링(주)

서울 분사무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0길 6, 포스시티 403호 T. 02) 2060-4717
광주 분사무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209-2 T. 062) 956-0131
본 사 :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30번길 14 T. 061) 281-2995
공 장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갈동길 55 T. 061) 322-7317 F. 061) 322-7316

문의 | 1855-2240



화재 **NO** · 단열 **YES**

준불연가등급

DK본 EPS 단열재

외단열용(2' X 4')
건축용(3' X 6')
판넬용(나등급)

DK보드는 독일 BASF 네오폴(비드법2종)에 특수 난연코팅과 난연액도포를 통해 탄생한 준불연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 준불연재료 공인시험기관 인증
- 열전도율 : 0.034 W/m·k 이하
- 친환경 수성

DK |주)대 광 판 널
|주)디케이보드

준불연 DK보드 www.dkboard.kr 검색



사단 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광주분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3, 휴먼빌딩 618호
T. 062)385-5053 F. 062)385-5054

본 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에이치비비즈니스파크 D동 907~912호
T. 02)558-8123 F. 02)558-8124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1405호
T. 051)745-9191 F. 051)745-9195

“인간·환경·기술이 하나되는 친환경 건축도시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



연구 업무

스마트건축·도시연구
건강건축연구(WELL Building)
유니버설디자인·고령자주거연구
제로에너지 건축연구(ZEB)
건축환경 및 성능연구
건물에너지진단 전문기관
그린리모델링 전문기관

www.kriea.re.kr